

특허청,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 강화

- 김완기 특허청장, 제65차 WIPO 총회 참석, 한국 수석대표로 연설 -
-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화) 12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분야의 성과와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WIPO 총회 대표 연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을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된 대표연설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고 이차 전지분야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 소개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한국이 2004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개도국의 혁신과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여성, 청소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지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기전략계획의 이니셔티브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WIPO 사무총장 양자회담>

김 청장은 7월 8일 8시 45분(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글로벌 지식재산(IP) 시스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협력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 등 국제출원의 감소 원인에 대한 탕 사무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탕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한 투자 감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영업비밀 선호 추세, 지식재산(IP)에 대한 선진국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IP)가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탕 사무총장도 공감을 표명했다.

탕 사무총장은 한국 등 동북아가 세계 지식재산(IP) 시스템의 발전을 주도하고, 한국의 콘텐츠경제가 급성장한 부분에 경의를 표했다. 김 청장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인들의 경험이 이러한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식재산(IP) 역량 발전성과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고, 한국이 지식재산(IP)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개도국들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과 탕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에 파견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직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사무소에 준하는 역할을 하여 한국의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내년이 한국 ‘발명의 날(5.19일)’ 60주년임을 언급하고, 기념행사에 탕 사무총장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탕 사무총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에드워드 콰콰(Edward Kwakwa)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보(글로벌 챌린지 섹터 담당)와도 환담을 갖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GREEN(탄소중립기술 수요공급 매칭 프로젝트)과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 등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식재산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을 모델로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려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개도국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붙임 1. WIPO 총회 및 사무총장 양자회담 사진

붙임 2. 한국신탁기금 사업 개요

붙임 3. 2023년 국제출원제도 이용현황(PCT, 마드리드, 헤이그)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박현수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WIPO 총회 대표연설>



(사진설명)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 12시(현지시각),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 총회에 참석해 WIPO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대한 노력을 치하하고, 이차전지 전담 조직 구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 도입 등 한국의 신기술 대응 노력을 알리는 대표연설을 했다.

< WIPO 사무총장 양자회담>



(사진설명)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8시 45분(현지시각),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개요

- **(목적)** WIPO 내 韓영향력 확대 및 지식재산 분야 외교력 증진
- **(내용)** WIPO 한국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지원 사업 제공

□ 추진경과

- 특허청 - WIPO 기본협력협정(9개 조항) 체결('01. 11)
- 특허청 - WIPO 신탁기금 설치를 위한 기관간 약정(11개 조항) 체결('04. 6.)
- 1차년도('04)~20차년도('23) 사업완료, 21차년도('24) 사업 추진 중
- * 예산 : ('15) 10억원 → ('16) 12억원 → ('17) 12억원 → ('18) 9.83억원 → ('19) 9.09억원 → ('20) 7.26억원 → ('21) 7.26억원 → ('22) 8.76억원 → ('23) 8.76억원 → ('24) 9.56억원

□ 주요 성과

- **(IP 개발역량 강화)** ①공무원 대상 IP 개발정책 석사(MIPD) 과정 운영, ②고위 공무원 대상 UNIDO 산업개발과 지식재산 과정 운영
- **(IP 활용역량 강화)** ①국제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운영 ②중소기업 등을 위한 교육모듈 IP 파노라마 2.0 개발, ③UNESCO 여성과정 운영, ④IP-R&D 기반 창업·혁신 과정 운영
- **(IP 인식제고)** ①블록체인 백서 및 영업비밀 백서 발간, ②발명왕 쵸로로 등 어린이 발명 콘텐츠 개발 보급

□ 국가별 신탁기금* 규모

구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특허청	문체부		
예산	77억원	9억원	10억원	16억원	3억원

* 2023년 기준 금액(출처 : WIPO Program of Work and Budget 2024/25)

□ 국별 PCT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 규모	
		'22년	'23년
1	중국	70,017	69,610 (△0.6%)
2	미국	58,823	55,678 (△5.3%)
3	일본	50,351	48,879 (△2.9%)
4	한국	22,023	22,288 (▲1.2%)
5	독일	17,469	16,916 (△3.2%)
11	인도	2,622	3,791 (▲44.6%)
14	터키	1,771	1,921 (▲8.5%)
총합		277,632	272,600 (△1.8%)

□ 국별 마드리드 상표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 규모	
		'22년	'23
1	미국	12,456	10,987 (△11.8%)
2	독일	7,690	6,613 (△14.0%)
3	중국	5,082	5,473 (▲7.7%)
4	프랑스	4,394	4,267 (△2.9%)
5	영국	4,194	3,817 (△9.0%)
6	스위스	3,750	3,284 (△12.4%)
7	일본	3,117	2,846 (△8.7%)
8	이탈리아	2,839	2,729 (△3.9%)
9	한국	2,031	2,090 (▲2.9%)
10	호주	2,342	2,016 (△13.9%)
총합		69,022	64,200 (△7.0%)

□ 국별 헤이그 디자인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 규모	
		'22년	'23
1	중국	1,287	1,813 (▲40.9%)
2	독일	869	903 (▲3.9%)
3	한국	817	825 (▲1.0%)
4	미국	756	744 (△1.6%)
5	스위스	652	712 (▲9.2%)
6	프랑스	649	688 (▲6.0%)
총합		7,978	8,565 (▲7.4%)